



진월동 지사협, 취약계층 아동에 치킨 지원

최근 광주 남구 진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 30명에게 사랑의 치킨 쿠폰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연이은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이웃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과 도움을 주고자 맛있는 치킨을 마련했다.

오승수 진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아동들이 치킨을 받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교선 진월동장은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진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민간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진월동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전남대병원, 가정의 달 맞아 행사 ‘다채’

전남대학교병원이 가정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사진)

지난 12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정진 전남대병원장은 지난 8일 최명기 간호부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보호자가 없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인 8동 9층을 방문해 입원환자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쾌유를 기원했다.

전남대병원 본·분원의 간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이자 어버이날을 맞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70세 이상 환자 258명에게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일 6동6층 어린이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아들에게 어린이날 기념 선물과 다과를 전달했으며, 지난 달 29일 6동1층 로비에서 약 100여명의 환자 및 가족들에게 장난감 만들기 부스, 그림그리기, 어린이 음악회 등을 열었다. 노병하 기자



광주 광산경찰, 피싱범죄 예방 간담회 개최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이 변화된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관내 은행과 함께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싱 피해예방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관내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실무책임자 11명이 참석했으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자들의 은행에서 현금이나 수표, 달러 인출 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등 인출 시 금융기관 직원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체계가 구축돼 있으나 금융 현장 최일선에서 범죄를 가장 잘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신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보다 더 적극적인 피싱범죄 피해 예방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철 기자



광주관광공사, ‘비짓광주 SNS 기자단’ 발대

광주관광공사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 관광을 SNS로 널리 알릴 ‘2025 비짓광주 SNS 기자단 발대식’을 지난 9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사진)

올해 선발된 기자단은 총 12명으로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다채로운 관광자원과 생생한 문화행사 현장을 SNS를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홍보 강화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기자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며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스트릿컬처 페스타 등 다양한 연간 축제 현장을 찾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광주 방문의 해를 알리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김진강 사장은 “비짓광주 SNS 기자단이 관광도시 광주의 진정한 매력을 알리는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약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글로벌광주방송-광주 5개 가족센터 MOU

(재)글로벌광주방송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5개구 가족센터(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가족센터)와 함께 지역사회의 가족복지 증진과 다양한 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가족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다문화 수용성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송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협력 사항은 △가족친화정책·이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양 기관의 주요 사업·프로그램 홍보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공동 사업 추진 등이다.

양측은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상이 기자



무안경찰, 어린이 통합버스 합동 안전점검

무안경찰은 지난 12일 무안 소재 16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합버스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무안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한 이번 점검은 통학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하원 시간대 주요 통학 노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항목은 ‘통합버스 신고’, ‘하차 확인 장치 정상 작동’, ‘차량 외부 점멸등 및 후방카메라 설치’,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운전자 및 동승자 자각’ 등이다.

무안경찰 교통과와 유관기관은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일부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 북부경찰 문흥지구대, ‘노쇼 방지’ 예방 활동 전개

광주 북부경찰 문흥지구대는 지난 12일 노쇼 방지에 대한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지난 4월29일 문흥지구대 관내에서 군부대를 사칭해 65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 예약 후 방문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문흥지구대는 빈번히 발생하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식당 및 배달업소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홍보전단지를 직접 대면 배포

·배부하면서 관내 피해 사례 및 범죄 유형에 대해 상담·안내를 실시했다.

양은석 문흥지구대장은 “노쇼 피해를 위해서는 선결제나 예약금을 받는 것이 좋고 예약 하루 전 문자 또는 전화로 재확인해야 한다”며 “단체 예약 시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 후 직접 주문자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광주 서부경찰 동천파출소, 어린이 안전교육

광주 서부경찰 동천파출소는 13일 서구 소재 빗고초등학교 학생을 초청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는 교통교육 등 각종 안전교육을 비롯해 경찰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됐다. 특히 학생들은 112순찰차 탑승체험

과 테이저건·수갑·무전기 사용법 등 경찰관의 다채로운 시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모성대 서부경찰 동천파출소 경정은 “이번 만남이 어린이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소통의 첫 걸음이 됐다”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동강대 간호학과 동아리, 외국인 학생 대상 의료 서비스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의료봉사 동아리 회원들이 외국인 학생들의 건강한 유학생생활을 위해 무료 의료 서비스를 펼쳤다. (사진)

동강대 국제교류원은 지난 10일 학교 교수연구동 1층 글로벌존에서 한국어학당 연수생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동강대 간호학과 의료봉사 동아리 ‘활기찬(지도교수 국제란)’의 주관으로 재학생 50여 명과 교직원들을 비롯해 안과, 치과, 내과, 외과 등 의사 6명과 간호사 2명, 베트남어 통역 봉사자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동강대 한국어학당 학생들에

게 내과, 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등의 무료 진료와 함께 약 처방과 간식까지 서비스했다.

특히 안과 진료 후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교내 안경점에서 무료로 안경을 제작해 나눠줬다.

동강대는 지난해에도 브릿지의료인회와 협업해 어학당 연수생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허숙 동강대 국제교류원장은 “어학 연수생들이 ‘동강대 학생’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